

알람이 울린다.....하.....월요일...시작되었구나. 저 알람을 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성이 냉철하게 말을 한다. 얼른 일어나. 7시다. 하지만 나는 7시가 아닌 30분 뒤에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역시 인터넷에서 주요 뉴스들을 확인하고 오늘의 날씨도 확인 했다. 여전히 세월호 구조자는 없었고 한 쪽에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판을 벌이느라 바쁘시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기적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뉴스를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좋지 않은 기분은 한 쪽 마음속에 넣어두고 창문을 열었더니 조금은 쌀쌀하지만 파스함이 느껴졌다.

날씨를 확인하면서 생각한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그리고 아침 뭐 먹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가버렸다. 사무실에 늦으면 안 되기에 얼른 씻고 밥을 대충 있는 반찬에 먹고 결국엔 아무 옷이나 골라 입고 사무실에 출근 했다.

사무실을 가는 길은 항상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자동차와 사람들이 섞여서 자신의 자리로 찾아 가고 다들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 맑은 듯 맑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를 들으며 출근을 했고 월요일 아침이라 조금은 적응이 안 돼 비몽사몽이다. 전화 벨 소리는 계속 울리고 전화를 받지만 상대방에서는 무슨 소릴 하는 건지... 전화가 끝나면 업무를 하고...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 나갔고 어느새 오전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시간이 와서 저번 주 토요일에 보지 못했던 무한도전을 보면서 싸운 도시락을 꺼내 점심을 먹었다. 배꼽 빠지게 엄청 웃었다. 원래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 사무실에는 나 혼자이다. 다들 외부일정으로 나 혼자 남겨져 무한도전과 점심을 먹었다. 혼자라 조금은 자유롭고 왠지 신난다. 그냥 편해..ㅋㅋㅋ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사무실에 있는 식물들에 물을 주고 나니 시간이 훌쩍 갔다. 오후에는 정말 열심히 일 안 했다. 월급 루팡쟁이다..흑흑 그리고 빨리 퇴근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퇴근한 시간 전에 다들 외부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호두과자와 과일 간식을 먹고 6시가 팽 치자마자 퇴근 고고씽. 퇴근하는 길 덩구나. 여름 같다.

집에 들려 짐을 놓고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다. 피아노를 배운지 한 달, 아직도 서툴다. 그래서 연습만이 살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치고 있다. 학원이 끝나고 8시. 항상 학교를 가로질러 집을 가는데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 어르신, 가족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뛰어논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 괜히 나도 뛰어 놀고 싶지만 내가 가야할 목적은 집이기에 집으로 향한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티비를 본다. 어느덧 오늘 하루도 훌쩍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언제 하루가 가나 타령만 했지만 벌써 저녁이다. 아.. 내일이 오는 게 싫다. 하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흑흑.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다. 그것에 감사한다. 그럼 난 오지 말라 해도 올 내일을 위해 눈을 붙인다...내일은 기적이 있길 바란다...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조금은 쌀쌀한 밤..깜깜한 내 자취방에서...